

부산시, 3612억 추경 편성... 민생안정·지역경제 활력 도모

올해 총 예산 17조442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
복지부문·안전 등에도 투입

부산시가 4일 본예산 16조6830억원 대비 2.2% 증가한 3612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총예산은 17조44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2629억원, 국고보조금 295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직접 추경안을 발표하고 “내수 회복 지원, 고금리 지속, 소비심리 위축,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1187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4만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마련해 최대 500만원씩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한다. 이자(최대 6%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월), 연회비, 보증료 없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당초 4175억원 규모에서 6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2배로 확대해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6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입 시 1만원을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환급해 민생경제 활성화

를 도모한다.

시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67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6675억원까지 확대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및 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부산 청년 취업성공패(Full)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시는 594억원을 복지부문에 투입

한다.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성 미달 지역 도시가스 공급,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부산남항 서방파에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기반 시설을 확충해 재난 안전망을 강화한다. 부산-마산 스크린도어 교체, 도시철도노후 차량 개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 시설 안전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의 재정 긴축 영향으로 인해 1차 추경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추경을 진행하려고 하는 만큼 6월 2차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표율 60%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임업인 육성 및 산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울진해안레포츨센터에서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교육은 임산물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과 울진 임업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임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업인 네트워크 형성, 산림 대전환의 목표에 따라 맞춤형 산림학교의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으로 임업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대한항공 사천~제주 노선 증편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대한항공, 사천~제주 노선이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 2회 증편 운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천공항 이용 환경 개선·기능 재편에 대한 도민 설문 조사 결과, ‘운항횟수 확대’ 의견이 7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도는 사천~제주 노선 증편을 항공사 측과 지속 협의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증편은 대한항공의 2023년 10월 사천~제주 노선 복항 이후의 첫 증편이다. 코로나 이후 매년 사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사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봄이 오는 3월, 순천으로 오세요”

미식주간, 이달 29일부터 진행
테마투어 이용요금 33% 할인

새롭게 시작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자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날 계획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꼭 여행 가야 할 ‘순천’을 적극 추천한다.

남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순천은 흥매화의 붉은 물결과 벚꽃의 화사함이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봄의 정취와 좋은 명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계절에서만 특별히 만날 수 있는 풍부한 봄맛과 지역의 특산물을 만끽할 수 있는 ‘순천 미식 주간’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시식 코너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한 순천농산물과 계절 메뉴를 경험하며, 순천 미식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

3월 한 달간, 순천을 각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순천 시티투어 ‘테마투어’ 이용요금이 33% 할인된다. 할인 적용 시 성인은 5000원에서 3300원으로 청소년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는 2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된다. 할인 혜택은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결제 시 자동 반영된다.

봄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찍었다면 ‘순천 3초의 매력’ 이벤트를 참여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순천의 봄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3초 내외의 영상 또는 3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3가지 키워드로 표현하여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경품으로 기프트콘, 순천 관광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전남도, 시설원에 14개 사업에 505억 투입

생산기반 확충, 농가 경쟁력 향상

전남도가 올해 시설원에 분야에서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14개 사업에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505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에 현대화 ▲ICT 융복합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원예단지 기반 조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265억을 지원키로 했다.

또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바이오차 보급,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지원,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딸기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총 240억 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과 스마트팜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혁신 사업 운영을 통해 첨단 농업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해 전남 농업 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시,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 추진

현장 실용교육, 이사비 지원 등

경주시가 체계적인 지원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장 실용교육 ▲이사비 및 임시거주지 임차료 등 재정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마을환영행사 등 귀농귀촌 초기 교육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주한 귀농인의 초기 영농실패의 부담을 줄이고자 선도농가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영농기술과 시설관리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관심 있는 분야 작목 재

배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 간 참여한 귀농연수생에게는 최대 월 80만 원, 선도농가에게는 최대 월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주농업대학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귀농귀촌 과정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치유농업 등 3개 과정을 주 1회(4시간) 운영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에게 최대 100만 원, 귀촌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귀농인에게 예비 정착지에 대한 일정기간 무료 수집·탐색을 위해 월 15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간 임시거주지 임차비를 제공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경남도, 해수부 ‘청정어장 재생사업’ 선정

고성군 당동만 해역 500ha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2025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고성군 당동만 해역 500ha가 선정돼 2026년까지 대규모 어장 청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모가 시행된 2022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회 연속 선정돼 창원 진동만, 남해 강진만과 함께 고성 당동만 해역에 사업을 추진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양식 어장과 주변 해역의 바다 밑을 정화해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50억원이

투입된다.

당동만 해역 청정 어장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오염 퇴적물 및 폐기물 제거 ▲양식장 시설 재설치비용 지원 ▲해양환경 진행간관측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청정 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인 교육 ▲사업 진단 및 효과 분석 등이다.

고성군 당동만 해역의 장기 연차·폐기물 침적으로 오염이 심화돼 양식생물의 성장이 둔화하고 폐사량이 증가하는 등 어장 생산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 동의를 끌어내 신청했고, 앞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대구국제섬유 박람회’ 열려

2025 대구국제섬유 박람회(Preview In Daeju, 이하 ‘PID’)가 5일부터 사흘동안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전통과 하이테크의 융합을 모티브로 국내외 261개사, 470개 부스 규모로 원사부터 패션 완제품까지 전 스트림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CES 2025 혁신상 수상업체와 함께 ‘지속가능 하이테크관’을 통해 초실감형 패션 3D 디지털화 서비스, AI 패션화보 촬영 솔루션, 나노섬유 세포배양 등 융합 신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섬유패션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부산시 올해 반려견 순찰대 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반려견 순찰대를 지난해 7개 자치구에서 10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키로 하고, 내달 6일까지 순찰대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2022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7개 자치구로 확대돼 238개 팀이 운영됐다. /부산=이도식 기자